

종합

“공급이 수요 창출” 광주 특급호텔의 경제학 외국인 관광객 작년 23만명 방문

상무지구 고급호텔 가동률 70% 육박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 내 특급·고급호텔의 가동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최근 문화관광연구원 이 발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009년 13만명에서 지난해 23만명으로 무려 10만명이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73%)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또 외래관광객 유치의 성과로 볼 수 있는 호텔가동률도 지난 2009년 40%(이용자 27만9000명)에서 지난해 52%(55만1000명)로 30% 가량 급등했다. 이 가운데 신

양파크와 프라도 등 특2급 호텔의 경우 가동률이 60%를 넘어섰고, 특히 특1급인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을 비롯한 상무지구 고급호텔은 가동률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주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온 특급호텔 유치, 옛길과 무돌길 등 무등산 명품길 조성, 비엔날레·김치축제·충장로축제 등 3대 축제관광상품 개발, 전남과 연계한 투어코스 개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관련, 시니어관광객을 위한 중국

노인문화교류행사를 통해 중국 내 거점을 마련하고 지난해 말 1만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 200만명 중 5%인 10만명이 광주를 방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해 1만5000명이 방문하는데 그친 일본시장보다 중국시장 중심의 마케팅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엔날레, 여수엑스포,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오는 2014년 KTX 개통과 함께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광주가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부, 영광원전 안전점검 착수

조사단 1~6호기 대상... 郡, 흥농~범성 도로 확장 건의

정부 원전 안전조사 점검단이 11일 영광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영광원자력본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 산·학·연 민간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안전 점검단은 고리, 월성, 울진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날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영광원전 1~6호기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지진 및 대형 지진해일의

여파로 원전의 전력이 끊기고, 이에 따라 노심 응해(핵연료봉이 녹는 현상)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 현황을 살피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지진 및 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여부, 침수 발생 시 전력·화재·냉각계통의 취약성 여부,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비상대응체계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점검단은 화재 방호 계획 운영상태 및 취약설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건전성 유지 대책, 대체비동형 디젤발전기 및 소의 전원설비 등 비상전원 건전성, 전원상실 시 복구 방안 및 비상전원 침수대비 능력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 방사선 비상계획, 중대사고 관리계획, 지진 시 비상시설 가동성, 방재 장비 확보 가능성, 비상방송 등

신 등 30여 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점검단은 20년이 넘게 운전 중인 영광원전 1, 2호기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이날 점검에 앞서 비상시 대피로가 될 원전 앞 흥농~범성간 도로 확장 공사, 내진 설계가 된 대피 공간 확보, 방재 훈련 등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을 점검 사항에 포함해 줄 것을 점검단 측에 건의했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받는 동시에 미흡한 점을 개선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점검 결과는 앞서 실시한 다른 원전의 점검결과와 함께 교과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간접흡연도 무서워요” 1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열린 ‘어린이 흡연 예방교육’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금연상담사로부터 간접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 출생·거래·폐사 신고기한 5일로 단축

구제역 등 소의 질병발생 시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뒤 오는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또 소비자들이 쇠고기 구입시 이력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필뉴스

광주 시내버스 조합, 4237만원 부당 집행

여비·업무추진비 등 회계규정 어겨

광주 시내버스 조합이 지난 4년간 회계규정을 어기고 운영비 42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내버스 조합의 운영비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비

와 업무추진비 등 4237만원을 관련 회계규정을 어기고 잘못 집행 온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내버스 조합 전체 운영비 중 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해 940만원을 반납하도록 했다.

광주시에 시내버스 조합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 운영비의 부당 집행 사실을 적발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처음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송경중(민주·광산 3) 의원은 이날 광주시 감사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광주시는 지난 207년부터 2010년까지 1131억원을 지원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다가 지난 2월 22일 첫 감사를 했지만, 고작 940만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끝까지 묘하게 돌아가는군

구간경계 조정안 광주시의회 상정

광주 북구의회가 최근 광주지역 기초의회 중 맨 마지막으로 구간 경계 조정 권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해온 구간 경계조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구간경계조정 권고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구간경계조정 문제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에서 최종 검토한 뒤 시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순 獨생물의약센터 ‘운영비 부담’ 걸림돌

전남도·프라운호퍼측 연간 40억 분담싸고 이견

내년 6월 화순에 들어서는 독일 프라운호퍼 한국연구소의 운영경비 부담문제를 놓고 한국과 독일측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 백산산업특구에 독일의 세계적인 생물의약 분야 연구개발재단인 프라운호퍼의 한국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운영경비 부담과 재산소유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현재 한국연구소 설립자금 중 260억원은 정부지원이 확정됐고 전남도와 화순군이 각각 40억원을, 프라운호퍼에서는 30억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또 연구소 부지와 건물, 장비의 소유권은 모두 한국측이 갖기로 했으며 연구소에서 생산된 신약이나 백신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도 20%는 개발권자, 나머지 80%는 독일과 한국측이 각각 절반씩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년에 30억~40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소 운영자금을 독일과 한국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독일측은 이를 전액 한국측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측은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

다. 한국측은 운영경비의 50%를 독일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전남도와 화순군이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독일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연구소 운영경비 부담문제를 국제변호사에게 맡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경비 부담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화순의 백산특구에 시약개발에서 생산까지 모든 시설이 집약돼 독일도 입지조건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고 있는만큼 운영경비 문제도 재단을 설립하는 6월 전까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무기 계약직 근로자 광주시, 휴일 유급화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의 휴일과 휴가 추가 유급으로 전환된다.

강문대 광주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공무원 신분과 다른 무기계약직·기간제 직원들 모두 다같이 땀 흘리며 근무하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기간제 직원들에 대해 관공서 휴일 유급제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같은 방침은 복리후생개선 측면에서 인정되는 휴일이나 휴가 등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연락처)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당신의 현장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지게차 임대·렌탈

한국보다 굴삭기 광주·전남 대리점

굴삭기·지게차·판매·임대·A/S·중고매매·캐피탈

☎ 덕승전기(주)·덕승물류기계
T.959-0100, 374-1686, 010-8108-2500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로그인 디자인 컨설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폭주!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앤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 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액: 500만원~8,000만원
- ▶ 금리: 연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액: 500만원~5,000만원
- ▶ 금리: 연 9%~
- ▶ 대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이자율 연 5%~44% 이내 (연체이자율 포함)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구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백영학

공무원 특별자금

무소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리관리 철저

- ◆ 대출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연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율권) / 후순위 - 연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SI세 -80%+α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 -80%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